

# 중국의 고령화와 고용문제

첸원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노동과학연구소 고용및인적자원연구실 부실장)

## ■ 중국 고령화의 특징

방대한 인구, 이원적 경제시스템, 지역 개발 불균형 및 산아제한정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중국 인구고령화에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고령화가 일찍 나타나 대규모로,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지난 수십 년간 출생률과 사망률의 하락, 기대수명의 연장, 노년인구의 증가, 노년인구 비중 급증 등으로 인해 중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 중국인구의 기대수명은 40세에 채 미치지 못했으나 2010년에는 73세로 늘어났고 22.7세였던 연령 중위수가 35.2세로 연장되었다(표 1 참조). 60세 이상 노년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 2000년에는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는데, 이는 중국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 유엔의 2012년 「세계인구전망」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고령화사회 진입 시점이 서방 선진국보다는 늦겠지만 개도국 중에서는 빠를 것이라고 한다. 즉 중국에서는 인도보다 20년, 브라질 보다는 10년 빨리 고령화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보다 빠르다. 2000~2010년 10.0%였던 중국 노년인구 비중이 12.4%로 늘어나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증가율 대비 1.3%포인트 높았다(표 2 참조). 2000년 중국 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7.0%이고 불과 25년 후인 2025년이면 14%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는 영국과 독일보다 20년, 미국보다 40년, 프랑스보다는 100년 빠른

<표 1> 중국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

(단위: %)

	0~14세 인구 비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연령 중위수(세)
1953	36.3	4.4	22.7
1964	40.7	3.6	20.2
1982	33.6	4.9	22.9
1990	27.7	5.6	25.3
2000	22.9	7.0	30.8
2010	16.6	8.9	35.2

자료: 中国历次人口普查数据资料.

<표 2> 중국과 외국의 고령화 과정 비교

	세계평균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	일본	인도	영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미국	러시아	중국
1950	8	11.5	6.3	5.2	7.7	5.4	15.7	16.2	14.4	4.9	12.5	7.7	7.5
1960	7.9	12.6	5.9	4.9	8.9	5.3	16.9	16.8	17.2	5.4	13.2	9.2	6.5
1970	8.3	14.6	5.9	5	10.6	5.5	18.8	18.1	19.7	5.8	14.1	12	6.5
1980	8.6	15.5	6.4	5.1	12.8	5.9	20	17.2	19	6.3	15.7	13.5	7.9
1990	9.2	17.7	6.9	5.1	17.4	6.2	20.8	19.2	20.4	6.8	16.7	16.1	8.6
2000	10	19.5	7.7	5.1	23.3	6.9	20.7	20.5	23.3	8.1	16.2	18.4	10.0
2010	11.1	21.8	8.7	5.3	30.7	7.7	22.7	23	26.1	10.2	18.5	18	12.4

자료: 유엔, 「세계인구전망보고서」.

속도이다(표 3 참조). 전망에 따르면 2010~2050년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인구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노인 인구 규모도 상당히 크다. 2015년 말 중국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억 2,200만 명(16.1%), 65세 이상 인구는 1억 4,400만 명(10.5%)으로 늘어났다.<sup>1)</sup> 중국은 이미 노년인구 최대 국가가 되었다.

중국의 인구고령화는 속도와 규모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계 평균과 절대다수의 개

1) 2015년 자료 출처: 『中国统计年鉴』.

<표 3> 65세 이상 인구 비중 증가율 비교

	65세 이상 인구 비중 7% 도달 연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도달 연도	65세 이상 인구 7%→14% 소요 기간(년)
프랑스	1865	1990	125
스웨덴	1890	1970	80
독일	1930	1975	45
영국	1930	1975	45
미국	1945	2010	65
일본	1970	1995	25
중국	2000	2025	25

자료: 유엔 및 세계은행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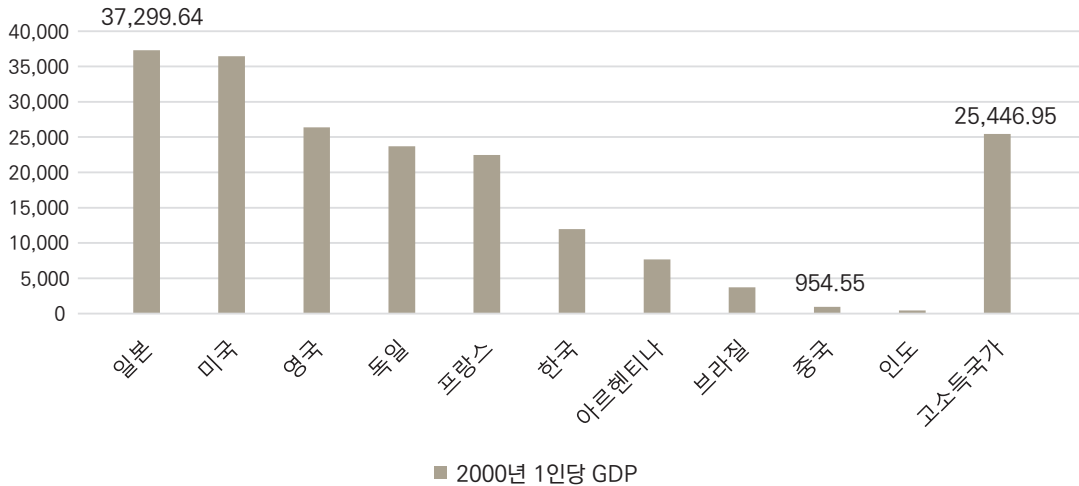
도국보다 높다. 미래 중국 고령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고 노년인구가 2020년이면 2억 5천 명(17.8%), 2030년이면 3억 6,500만 명(25%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sup>2)</sup> 또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노인 4명 중 1명이 중국 노인일 것이고, 향후 수십 년간의 인구고령화 과정에서 중국이 노인 인구 면에서 글로벌 상위그룹에 속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고령화는 전형적인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이다.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산업화와 도시화는 미완의 상태이다. 이는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산업화와 도시화 완료 후 인구고령화가 나타났던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현재 중국이 총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2위로 부상했으나 주요 경제지표의 1인당 수치는 세계 주요 경제대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00년 중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던 시점에 1인당 GDP가 1,000달러가 채 안 되며 전 세계 고소득 국가 평균의 1/25, 일본과 미국의 1/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주요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그림 1 참조). 기타 경제·사회 관련 지표의 1인당 평균치도 세계 주요 국가보다 낮고, 특히 사회보장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하여 노년인구에 대한 보장능력과 지원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중국의 인구고령화는 경제·사회적으로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 도래한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의 전형으로, 상대적으로 성숙한 경제·사회적 여건이 형성되기 전에 고

2) 이 글에 제시된 2010년 인구 데이터 및 관련 전망치는 출처를 별도로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6차 인구총조사(第六次人口普查) 결과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1] 2000년 일부 국가의 1인당 GDP 현황

(단위 :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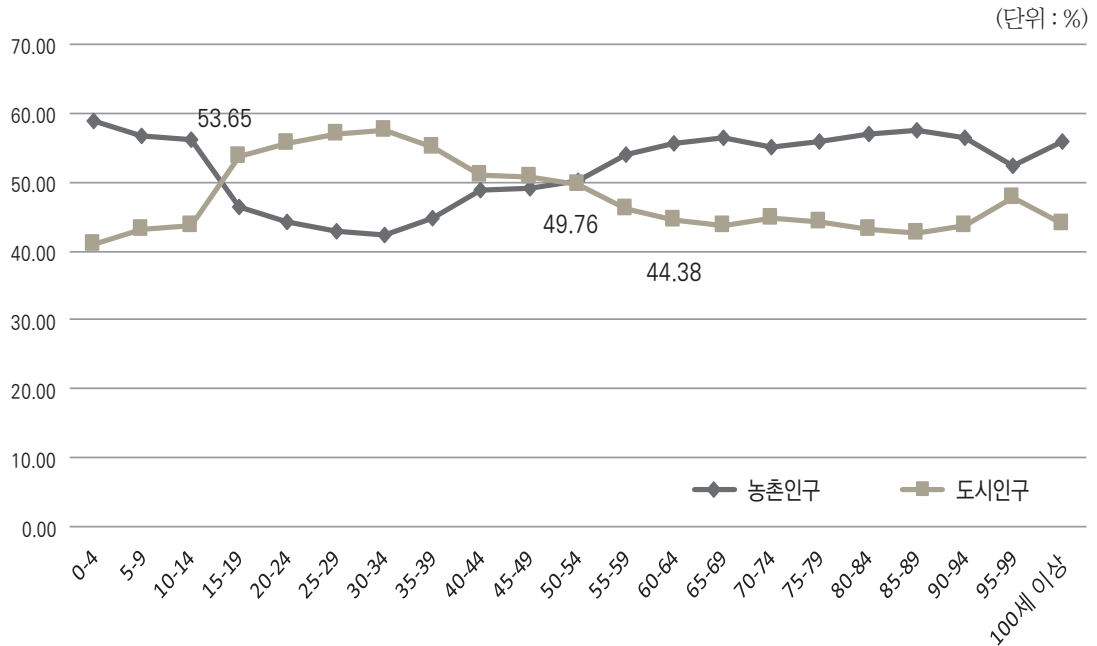


자료 : 세계은행 DB를 토대로 정리.

령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셋째, 중국의 고령화는 도·농 간, 지역 간 뚜렷한 불균형 현상을 특징으로 한다. 우선 도시와 농촌이 직면한 고령화에 불균형 현상이 존재한다. 중국은 현재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에 처하여 도시와 농촌 간 이원화된 경제·사회 구조의 영향하에 많은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유입되어 도·농 지역 인구의 연령구조에 변화를 가져왔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정도가 도시보다 훨씬 높다. 2010년 중국 농촌 거주 60세 이상 노년인구는 9,900여만 명, 비중은 15.0%로 도시 대비 2,100만 명, 3.3%포인트 많다. 농촌 거주 16~59세 생산가능인구는 4.27억 명, 비중은 64.4%로 도시 대비 6,200만 명, 8.6%포인트 적다. 또한 산아제한정책의 영향으로 농촌 총 출산율이 도시보다 높다. 0~15세 인구가 1.36억 명, 비중은 20.6%로, 도시 대비 각기 3,360만 명, 5.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지역 각 연령대별 인구 분포 현황으로 볼 때, 15세 이하 인구와 55세 이상 인구가 농촌지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도시보다 뚜렷이 높다(그림 2 참조). 그 이유는 농촌의 청장년 노동력은 도시로 일하러 가고 농촌에는 어린아이와 노인만 남아 있기 때문으로 농촌지역 노인은 농업생산, 가정과 어린아이 돌보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도·농 간 경제사회 발전의 불균형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그림 2] 2010년 도·농지역 연령대별 인구 비중



자료: 根据第六次人口普查数据计算整理.

노년인구 비율이 ‘도시는 낮고 농촌은 높음’ 특징이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지역 간 고령화 정도에 많은 차이가 난다. 제6차 인구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산해 보면 행정구역별로 볼 때 티베트를 제외한 다른 성(구, 시) 모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지역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상하이에는 1979년에 중국 내 성(도시) 중 최초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반면 닝샤는 상하이보다 33년 늦은 2012년에야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2010년 중국 내에서 고령화 정도가 가장 심각한 충칭은 노년인구 비율이 17.4%로 가장 낮은 티베트(7.7%)의 두 배가 넘었다. 각 지역의 고령화는 경제적 수준, 출산정책, 인구 이동 등 복잡한 요인에 기인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상하이, 장쑤, 산둥, 저장 등 동부 연안에 위치한 성은 경제수준이 높아 고령화 정도가 높다. 충칭, 쓰촨, 안후이, 후난, 후베이 등 지역은 많은 청년 노동력이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고령화 정도가 역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티베트, 칭하이, 신장, 닝샤, 윈난 등 완화된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되었던 소수민족 밀집지역과 경제적으로 발달하여 외래 노동력이 집중된 광둥, 푸젠성은 고령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표 4> 2010년 중국 내 성(省)별 인구고령화 현황

지역	비중(%)	지역	비중(%)	지역	비중(%)
전국	13.32	지린	13.21	네이멍구	11.48
충칭	17.42	광시	13.12	장시	11.44
쓰촨	16.30	헤이룽장	13.03	푸젠	11.42
장쑤	15.99	톈진	13.02	하이난	11.33
랴오닝	15.43	허베이	13.00	윈난	11.06
상하이	15.07	산시	12.85	광둥	9.73
안후이	15.01	구이저우	12.84	닝샤	9.67
산둥	14.75	허난	12.73	신장	9.66
후난	14.54	베이징	12.54	칭하이	9.45
후베이	13.93	간쑤	12.44	티베트	7.67
저장	13.89	산시(山西)	11.53		

자료 : 根据第六次人口普查数据计算整理.

<표 5> 2010년 연령대별 학력 현황

(단위 : %)

연령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이상	전 체
전 체	5.00	28.75	41.70	15.02	5.52	3.67	0.33	100.00
15~19세	0.47	6.53	45.20	39.64	4.79	3.37	0.01	100.00
20~24세	0.53	6.82	46.58	20.72	13.77	10.97	0.61	100.00
25~29세	0.76	8.56	52.18	17.92	11.07	8.28	1.22	100.00
30~34세	1.08	12.87	53.28	17.56	8.76	5.66	0.80	100.00
35~39세	1.42	18.09	55.04	14.81	6.45	3.75	0.44	100.00
40~44세	1.94	23.60	53.92	12.82	4.64	2.80	0.28	100.00
45~49세	2.46	23.94	49.13	17.42	4.43	2.36	0.26	100.00
50~54세	4.65	33.03	39.15	18.26	3.47	1.32	0.12	100.00
55~59세	7.58	45.24	34.01	9.38	2.76	0.97	0.06	100.00
60~64세	11.21	52.54	26.00	6.91	2.40	0.90	0.03	100.00
65~69세	16.62	51.04	21.78	6.96	2.15	1.42	0.03	100.00
70~74세	25.18	50.53	14.54	5.73	2.15	1.85	0.03	100.00
75~79세	34.82	47.61	10.83	4.00	1.49	1.20	0.03	100.00
80~84세	44.19	42.52	8.34	3.04	0.96	0.91	0.03	100.00
85세 이상	52.85	36.66	6.61	2.36	0.70	0.78	0.03	100.00

자료 : 根据第六次人口普查长表调查数据计算整理.

나타났다. 전체 추이로 볼 때, 지역 간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해 중서부지역 출신 농민공의 귀향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력 이동에 의한 영향이 큰 지역의 인구구조에 단기간 내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표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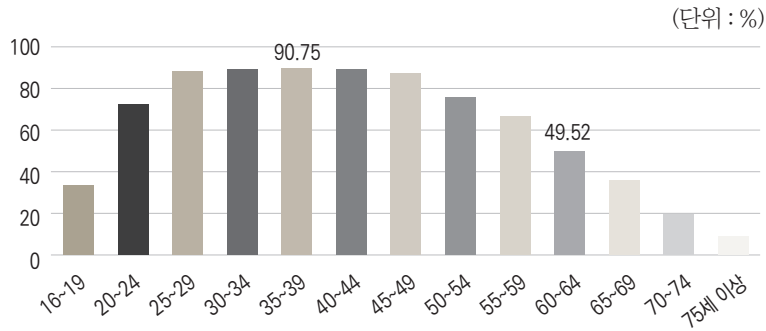
넷째, 노년인구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 중국은 노년인구가 많지만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낮다. 제6차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80% 이상이 중졸 이하의 학력이고 그중 절대다수가 초졸 혹은 무학자이며 그 비율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다. 반면 대졸자 비율은 4%에 못 미치는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많이 낮다(표 5 참조). 고용의 관점에서 볼 때 상기 상황은 절대다수의 노년인구가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은 저임금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노년인구의 노동참여 현황

현재 중국의 노년인구는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년인구는 노동공급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기여를 하고 있다. 첫째, 직접적 소득이 발생하는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는 노년인구의 노동참여 및 근로시간을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직접적 소득이 없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통 가정문화의 영향으로 중국 노인들은 가정을 돌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격세 후손(손자) 돌봄에 중요한 책임을 진다. 노년인구의 가사노동은 노동시장의 공급에 상당 정도의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상 두 가지 노동 형태 중 가사노동과 관련하여서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부재하므로 제6차 인구 총조사 결과 중 노동참여율과 근로시간에 근거하여 첫째 역할인 노년인구 노동참여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분석해 보겠다.

총인구 중 연령대별 노동참여율을 살펴보면 60~64세 인구의 노동참여율이 49.52%이고(그림 3 참조), 65세 이상은 21.10%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5차 인구 총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노년인구의 노동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다소 하락했다. 60~64세 인구의 노동참여율은 0.54%포인트, 65세 이상 인구는 3.96%포인트 줄어들었다. 주목할 점은 여성 노인의 노동참여율이 다소 상승했다는 것으로 60~64세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1.64%포인트, 65세 이상은 6.21%포인트 늘어났다.

[그림 3] 2010년 연령대별 노동참여율



자료: 根据第六次人口普查长表调查数据计算整理.

<표 6> 2010년 연령대별 도농인구의 노동참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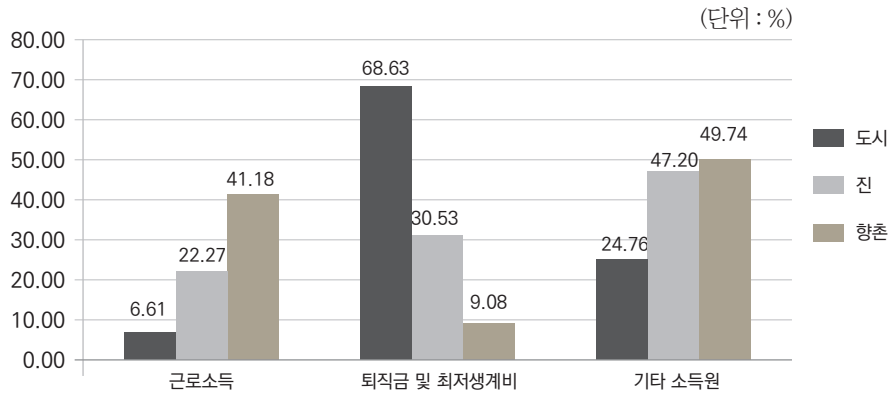
	도시인구	농촌인구
전 체	64.29	77.81
16~19세	24.87	43.22
20~24세	64.61	82.58
25~29세	86.82	91.59
30~34세	87.78	93.33
35~39세	87.81	94.24
40~44세	87.14	94.31
45~49세	82.24	93.01
50~54세	62.65	89.22
55~59세	46.29	84.10
60~64세	24.30	68.74
65~69세	15.49	51.49
65세 이상	8.55	22.32

자료: 根据第六次人口普查数据计算.

도시와 농촌의 고령화 양상에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년인구의 노동참여율 면에서도 도·농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난다. 제6차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지역 인구의 총 노동참여율과 연령대별 노동참여율은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촌 인구의 노동참여율은 77.81%로 도시 대비 13.52%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60~64세 인구의 노동참여율 면에



[그림 4] 60세 이상 노년인구의 주요 소득원 비교



자료 : 根据第六次人口普查数据计算.

서 도·농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해당 연령대의 농촌 인구의 노동참여율이 68.74%로 도시의 노동참여율 24.30%보다 44.44%포인트 높았다. 도·농 간 차이가 가장 적은 연령대는 25~29세로 차이가 4.77%포인트에 불과했다.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사회에서 노인의 5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며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미비하여 주로 가족의 부양이나 자력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촌 거주 노년인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농업 관련 노동에 종사하며 생활 필수품을 획득하고 있다. 제6차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촌(鄉村)지역 60세 이상 인구 중 근로소득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는 비율이 41.18%인 반면 도시는 그 비율이 6.61%에 불과하고 진(鎭)은 22.27%이다. 퇴직금과 최저생계비 등 사회보장지원금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도시는 68.63%, 진은 30.53%인 반면 향촌은 9.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노년인구의 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청년 및 중년 근로자 대비 짧게 나타났다. 60~64세 노년인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21시간으로 전체 평균인 45.16시간보다 약 5시간 짧고, 근로시간이 가장 긴 35~39세 근로자의 46.64시간에 비해서는 6.43시간 적게 나타났다. 그중 34.79%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5시간 이하이다. 성별로 볼 때 남성 노년인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여성보다 3~5시간 긴데, 이는 다른 연령대와 양상은 같지만 그 차이가 좀 더 크다.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하인 경우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낮

<표 7> 2010년 연령대별 주당 근로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35시간 이하(%)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45.16	46.4	43.63	16.95	13.60	21.12
16~19세	45.36	45.74	44.92	18.34	17.61	19.20
20~24세	45.83	46.95	44.61	14.42	11.90	17.19
25~29세	46.07	47.34	44.59	12.05	9.23	15.37
30~34세	46.52	47.72	45.09	11.59	8.80	14.94
35~39세	46.64	47.85	45.21	12.45	9.33	16.16
40~44세	46.24	47.56	44.69	14.25	10.61	18.51
45~49세	45.53	46.93	43.82	15.75	11.56	20.86
50~54세	44.36	45.93	42.02	19.56	14.19	27.55
55~59세	42.81	44.57	40.16	25.20	19.11	34.36
60~64세	40.21	42.01	37.57	34.79	29.46	42.64
65~69세	37.81	39.36	35.26	42.18	37.72	49.51
70~74세	34.7	35.9	32.52	51.38	48.21	57.13
75세 이상	32.04	33.09	30.35	57.92	55.57	61.72

자료 : 根据第六次人口普查数据计算.

은데, 이는 기타 연령대와는 상반된다(표 7 참조). 이러한 상황은 여성 노인의 노동강도가 여타 인구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을 말해준다.

고용형태로 볼 때, 노년인구의 고용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5년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표본조사<sup>3)</sup>에 따르면, 농업 이외 부분의 고용형태로 볼 때 노년 근로자 중 상근직 비율이 중·청년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및 기타 형태의 유연 고용 비율은 중·청년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60~64세 근로자를 예로 들면 상근직 비율이 37.86%로 최고치인 68.19% 대비 30.33%포인트 낮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및 기타 형태의 근로자 비율은 47.59%로 최저치인 22.14% 대비 25.45%포인트 높다(표 8 참조). 이는 현재 노년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의 질 또한 상대

3) 본 조사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실시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현황에 관한 연례 표본조사이다. 본고의 분석 데이터에는 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설문응답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표 8> 2015년 연령대별 고용형태

(단위: %)

	상근/공무원	비상근	파견직	민간기업주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타형태	전체
만16~19세	45.44	14.42	1.16	1.57	5.04	21.54	10.82	100.00
만20~24세	64.31	8.52	1.73	1.77	4.21	11.55	7.91	100.00
만25~29세	67.81	6.88	1.67	1.50	6.20	9.53	6.41	100.00
만30~34세	68.19	5.76	1.55	1.62	7.63	9.43	5.83	100.00
만35~39세	64.17	6.16	1.42	1.82	9.78	9.90	6.74	100.00
만40~44세	57.01	7.58	1.27	2.02	10.82	12.79	8.52	100.00
만45~49세	56.63	7.82	1.44	1.65	10.45	13.03	8.99	100.00
만50~54세	57.76	7.69	1.32	1.49	9.96	12.30	9.48	100.00
만55~59세	60.64	8.41	1.28	1.00	6.79	11.88	9.99	100.00
만60~64세	37.86	12.07	0.98	1.50	11.04	21.98	14.57	100.00
만65~69세	31.25	11.63	1.51	1.20	11.72	27.95	14.73	100.00
만70~74세	23.76	11.79	0.00	1.08	16.58	21.65	25.14	100.00
만75세 이상	37.33	7.32	2.05	1.64	10.86	33.05	7.75	100.00

자료: 2015年人社部人力资源和社会保障基本情况调查问卷数据.

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인구고령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추세는 장차 고용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 공급과 수요, 고용의 총량과 구조에 장단기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완만하게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그 자체가 핵심 변수이기도 하다.

1. 노동력 공급량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로 인해 총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중국 내 노동력 공급이 풍부한 편이지만 장차 총공급이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 지난

30년간 중국 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1년 16~59세 인구가 9.18억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총인구 중 비중도 68.5%를 차지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진전에 따라 2012년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전년 대비 300만여 명 줄어들며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망에 따르면 미래 중국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그에 수반되는 인건비 상승, 그리고 노동집약형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2. 노동력 공급 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고용의 구조적 모순이 가중될 것이다.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변화 과정으로 중국에서 고령화로 인한 인력 구조의 변화는 주로 청년 노동인구 감소와 노동연령의 뚜렷한 상승세, 노년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의 양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용구조 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중국 내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00년 34.9세이던 평균연령이 2010년에는 36.4세로 늘어났고 2020년이 되면 38.5세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중 중년 노동력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청년 노동력은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나 생산가능인구구조가 지금의 ‘항아리’ 형태에서 ‘역피라미드’ 형태로 변화될 것이다. 추산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45~49세 중년 노동력이 2010년에 2.66억 명이었던 데서 3.39억 명으로 늘어나고 비중 면에서는 8.5%포인트 증가한 37.5%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노동력이 중년화되면 근로자의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고 사회적 안정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한다.

첫째, 중년 노동력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 경험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고 직업 전환 능력 또한 부족하여 대부분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이동성과 유연성이 필연적으로 약화되고, 특히 경기 침체기나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실업문제가 나타날 경우 중년 노동자의 전직이나 전업 및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다.

둘째, 중국 근로자의 정년이 빠르고 조기 퇴직 현상이 있는 데다 도시화와 시민화가 뒤쳐져 많은 농촌 출신 근로자가 중년에 진입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도시 노동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중년 노동력의 이용률이 낮다. 만약 이런 상황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년 노동력 비율이 늘어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유효 공급이 한층 더 줄어들 것이다.

셋째, 비농업 부문으로 전환되지 않은 농촌지역 중년 노동력의 전환이 더욱 어려워지고 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중년 노동자는 귀향하여 고향 인근 지역에서 취업 혹은 창업하게 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도·농 및 지역 구조에 새로운 문제와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다.

청년 노동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력시장에서 청년 노동력 선호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노동력 수급 구조의 문제점이 한층 더 가중되었다. 그 밖에 청년 노동력 공급 감소가 단기적으로는 청년 취업난, 특히 단순 노동의 취업 압박을 완화시키겠지만 이로 인해 전 사회적으로 청년 노동력에 대한 교육과 기능 훈련을 소홀히 함에 따라 새로운 ‘학습무용론’이 형성되어 장기적으로 청년 노동력의 자질구조와 경제구조에 대한 적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고용구조에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청년 노동력의 감소는 노동시장의 활력 저하와 혁신마인드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청년인구의 감소는 전체 인력구조 고도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의 개선 속도 및 수준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것이다. 청년인구의 교육 수준이 대폭 향상되면서 청년 노동자의 인적자원 관련 투자가 크게 늘어났고,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기대를 높였고 노동시장에서의 인건비 상승을 야기했다. 이는 또 노동자의 취업관, 직업 선택 방식, 직업에 대한 기대, 권리의식 및 행동능력을 변화시켜 노동시장의 형성에 더욱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날로 확대되는 노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은 고령화사회로 인해 고용분야에 야기되는 직접적 도전이다. 노인 인적자원 개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화, 경기 상황, 노인 인구의 기능 및 자질 등에 따라 다를 것인데, 중국의 현 상황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현행 정책하에서의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인적자원 개발은 취업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노년인구의 기존 노동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상당수의 노년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인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기존 노인인구 취업에서의 노동관계를 보다 규범화하여야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인건비와 노동자의 소득, 더 나아가 고용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 내부 구조에 등급이 존재함에 따라 노인 인적자원을 개발한다고 해서 청년 인력 감소의 영향을 완전히 상쇄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년 인력 감소로 인한 문제는 산아 제한정책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노인 취업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와 경로가 필요하다.

넷째, 고령화 관련 정부 정책 마련 시 고용과 사회보장 간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금 수령 연령 상향 정책 시행에 있어 전반적인 고용 상황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노년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사회보장 부양비의 압박을 완화하고 고용에 큰 압박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고령화로 야기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 소득, 소비, 저축, 서비스 수요 및 사회 정책 등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조정과 고용 수요 구조의 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구고령화는 고용에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 ■ 고령화로 인한 고용문제 대응에 관한 정책 제언

세계적 경험과 인구 변화 추이로 볼 때 인구고령화는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추세이므로 인구 및 경제·사회 발전 간 관계의 변화와 인구 변화로 인한 객관적 현실에서 출발하여 전면적, 객관적, 발전적 관점에서 인구고령화 및 그 영향을 인식하고 선제적 정책 제정을 통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과제에 대응하며 그로 인한 성장의 기회를 발굴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첫째, 고용우선전략을 견지하여 고용과 경제성장 간의 선순환을 실현한다. 2030년까지는 중국의 노동력이 8억 이상으로 인력자원이 풍부한 상황이 유지될 것이므로 고용우선전략을 지속 시행하며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고용 확대를 더욱 중시하여야 한다.

경제발전과 인력자원의 효과적인 개발 및 활용 간에 선순환을 이루어야 한다. 경제 성장모델 고도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기존 인력자원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노동집약형 산업과 서비스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실물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노년 인구를 포함한 각종 인력자원을 심분 활용하여 ‘인구 보너스’를 최대한 개발 및 활용함으로써 경제의 지속 성장을 통한 부의 축적을 이루어야 한다. 노동참여율과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실제 상황에 기반한 정년

연장, 학제 단축 등 조치를 통해 노동자의 실제 근로 연한을 늘림으로써 노동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인력자원의 자질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노동생산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둘째, 지역의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경제구조의 합리화와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중국은 국토가 넓어 지역 간 고령화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데, 중국만의 중요한 특징이자 독특한 비교우위이기도 하다. 동부지역의 경제적으로 발달한 성(省)이 외래 노동력에 대한 개방적·포용적 태도와 체계적 이주 정책을 통해 낮은 고령화율을 유지하고,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우위에 기반한 혁신주도형 전략을 시행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이루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식 및 기술 집약형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서부지역은 현지 중년 노동력의 우위와 일부 노동력 회귀로 인한 잠재력을 활용하고 노동집약형 산업을 단계적으로 유치하여 경제성장에 앞선 지역을 추월해야 한다.

셋째,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기회를 포착하여 '실버'산업 발전을 추진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 각종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노년인구 대상 서비스시스템과 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및 의료 보건 서비스, 사회복지, 지역사회 서비스 및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충족시켜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고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앞당긴다. 노년인구가 일하기에 적합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노년인구가 참여해 온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점차 실현하고 그에 상응하는 각종 지역사회 인프라와 정책 및 제도를 구축한다.

넷째, 신형 도시화와 농업 현대화를 조화롭게 추진한다. 중국인 1인당 경작지 면적, 농업 노동력의 비중, 농업의 발전 수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볼 때 중국 농촌에는 아직도 많은 잉여노동력이 있고 현재 농촌의 15세 이하 인구가 성년이 되면서 계속해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와 농업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농촌 출신 노동력이 직면한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 출신 근로자의 도시 주민으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농촌 잉여 노동력의 도시 주민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안정적 취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농촌의 토지 관련 기본제도를 안정화하여 농촌 인구의 토지 관련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도시화와 농업 현

---

대화 과정에서 토지자원이 농촌 인구, 특히 농촌 노년인구의 취업과 생계 유지를 위한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에서는 특화 농업, 농촌 관광 등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중년 및 노년 노동력의 농촌 내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년 및 노년 노동력 취업 관련 제도 및 역량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중년 노동력은 미래 중국 노동력 자원의 핵심이 될 것이고 국민 건강이 증진됨에 따라 60세 이상 인구도 거대한 인력자원으로 부상할 것이다. 따라서 중년 및 노년 노동력 취업 관련 법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고용 촉진, 노동시장,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관련 정책을 완비해나가야 한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 각 계층이 노동시장 수급 상황의 변화를 분명히 인식하고 중년 및 노년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조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중년 및 노년 인구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자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직업 능력 평생교육 및 훈련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141**